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⑰

태장계만다라의 '관음원(觀音院)' 과

주존(主尊) 성관자재보살(聖觀自在菩薩)

지난 호까지 변지원(遍知院)의 존상(尊像)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호부터는 태장계만다라의 세 번째 그림(院)인 관음원(觀音院)의 존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음원의 주존(主尊)인 성관자재보살(聖觀自在菩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관음원을 달리 연화부원(蓮華部院)이라고도 한다. 이 관음원은 중대팔엽원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행자가 만다라를 향하여 왼

원의 무량수여래가 펼치고 있는 중생제도의 구체적 전개인 것이다. 또 연화부원의 제존(諸尊)의 활동은 궁극에는 무량수여래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존(主尊)의 성관자재보살이 관(冠)에 무량수여래를 화불(化佛)로 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이다.

이 연화부원의 공통적인 종지는 진리를 의미하는 범어 satya(諦)의 접두사 sa인데, 『대일경소』에서는 연화와 같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asakta(無執着)의 접두사 sa라고 해석하고 있다. 변화관을 가운데 옛날부터 가장 광범위하게 신앙되어 왔던 천수관음과 십일면관음은 나중에 살펴볼 허공장원(虛空藏院)과 소실지원(蘇悉地院)에 각기 배치된다.

성관자재보살(聖觀自在菩薩)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 이 성관자재보살을 염하며 그 명호를 부를 때, 그 음성을 관하여서 윤회고(輪廻苦)에서 해탈된다. 관자재(觀自在)라는 명호는 온갖 존재의 실상을 관찰함에 자유자재한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성관자재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때, 몸을 갖가지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고 여겨왔기에 많은 변화관음들이 신앙되어 왔다. 이 성관자재보살의 지혜는 『대일경』 '주심품'에 설명되고 있는 '십연생구(十緣生句)의 관찰삼매(觀察三昧)에 의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성관자재보살

관음원을 달리 연화부원(蓮華部院)이라고도 한다. 이 관음원은 중대팔엽원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행자가 만다라를 향하여 왼쪽에 있는 곳이다. 제1열의 중앙에 앉은 주존(主尊)이 성관자재보살이다. 이 보살을 또다른 변화관음존(變化觀音尊) 20분이 중대팔엽원을 향하여 세 방향으로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 16존의 사자(使者)가 뒤따르듯 자리잡고 있다. 『대일경』 「구연품」에서는 이 원(院)에 7위의 본존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 7위를 동쪽(만다라의 위쪽)으로부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명비(明妃)·야운다라(耶輸陀羅)·득대세(得大勢)·비구지·관세자재(觀世自在)·다라(多羅)·백처존(白處尊)·하야게리파(何耶揭利婆)의 순서로 나열된다. 『대일경소』에 따르면, 여래가 대비삼매(大悲三昧)에 머무르며, 중생들의 온갖 선근(善根)을 성취시키는 덕을 표현한 것이 이 연화부원(蓮華部院)이다. 이 원(院)은 대비한 덕의 작용활동력에 의하여 중생은 번뇌의 찌든 때에 더럽혀지지

관음원은 중생의 온갖 번뇌 의혹을 잘 살펴보고 중생을 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 성관자재보살을 염하면 해탈...

않고 본래 지니고 있는 정보리심(淨菩提心)을 현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화화도 같이 때문에 연화부원(蓮華部院)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또 이 작용활동력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관음보살이기 때문에 관음원(觀音院)이라고도 한다. 여래의 대비(大悲)의 덕을 표현하는 이 원은 중대팔엽원의 남방에서 여래의 지혜가 갖는 작용활동력을 나타내는 금강수원(金剛手院)과 상응하여 중대팔엽원의 여래가 행하는 중생제도의 덕을 나타낸다. 여래가 지닌 대비의 덕은 오지(五智) 가운데 묘관찰지(妙觀察智)에 근거한다. 여래는 이 지혜에 의하여 중생의 온갖 번뇌 의혹을 잘 살펴보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 지혜를 주관하는 것은 중대팔엽원 중에서 무량수여래이다. 따라서 연화부원은 중대팔엽

정법금강(正法金剛) 또는 본정금강(本淨金剛)이며, 삼매야행은 처음 편 연꽃 모양이다. 이를 초월연화(初摩蓮華)라고 한다. 존형(尊形)은 백옥색으로 왼손에는 아직 피지 않은 붉은 연화(蓮華)를 가슴에 대고, 오른손으로 그 연화(蓮華)의 꽃잎을 벌린 모습을 하고, 백색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무량수여래의 화불(化佛)이 있는 관(冠)을 쓰고 있다. 인상(印相)은 팔엽인(八葉印)이다. 진언은 '나막 사만다 보다남 사리바타타가타 바로기다 가로타마야 라 라 라 홀 자하 사바하'이며,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여래 중에서 잘 보는 자여! 자비 깊은 자여! 라 라 라 홀 자하 사바하'의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생활속에 밀고

수행이란 매일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은 부단한 자기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하면, 매일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과 같이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 거울을 들고 그 용도에 대하여 라훌라에게 물었습니다.

라훌라가 "그것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거울과 같이, 그대는 어떠한 행위이든 그것이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울은 흉한 모습을 아름답게 비추어 줄 수 없고 아름다운 모습을 흉하게 보여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의도를 볼 수 있을 때, 즉 거울처럼 비추어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행위는 훨씬 더 정화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괴로운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위와 습관적인 반응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늘 중독적이며 들떠 있고, 항상 '나'라는 자만과 아집에 빠져 있습니다.

기령, 상대방이 그대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에 즉각 반응하여 내가 다시 그의 단점을 말하고 나쁘게 말을 하며 용서될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끈에 몰아넣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못된 마음과 내 입장만을 생각하는 응졸함에서 벗어나 언제나 상대방의 편에서 서서 그의 장점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위와 습관적인 반응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그의 불만은 바로 우리가 보낸 불만의 모습을 보여 준 것 일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점을 이야기 한다면 그는 결코 우리에게 추천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바르지 못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거기에 다시 반응하면 안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는 바로 우리의 나

쁜 업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 반응하여 추천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업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 오게 됩니다.

다시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비난하고 때릴 경우에, 그리고 그대를 구속하고 물건을 빼앗을 경우에, 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그대의 미워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다. 오직 그러한 생각을 중단할 수 있을 때, 그대의 미워하는 마음은 진정된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은 결코 더 큰 마음으로 가라 앉힐 수 없고 오로지 사랑만으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법이며 진리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 자신을 관찰하고 항상 잊지않고 생활 속에서 바른 삼밀행(三密行)을 행하여야 한다

괴로움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위와 습관적인 반응때문

수행을 할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진언염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간수가 죄수를 관찰하듯이 자신을 관찰하는 수행은 매일 매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나쁜 마음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러한 마음들로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탐진치 삼독에 빠져 악업만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이해한다면 항상 마음을 관찰하고 바른 행을 잊지 않고 행하여야 하며 나쁜 마음을 항상 선한 쪽으로 돌리는 올바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수행을 할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수행이 느슨해질 때 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다시 마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진정 수행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하여야 하며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항상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찾도록 하는 바른 삶의 연습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완성을 위함입니다. (법경/ 연구원/시무국장)

진언수행의 길

서원당에 모셔져 있는 본존을 개인의 가정에 모셔 놓는 데 이를 가정본존(또는 가정다라니)이라 한다. 가정본존을 집에 모셔 놓는 이유는 서원 당에 나올 수 없는 교도들이 집에서도 불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기 때문이다. 또한 진언행자라면 당연히 가정본존을 봉안하여 진언연승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본존을 모시고 늘 예배하는 생활은 불제자의 도리요, 진언행

자로서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우리 총지종의 수행지표는 시시불공, 처처불공으로 즉신성불함에 있는 고로 어떤 때 어느 곳에서라도 불공을 행하고 있다. 가정본존 봉안을 희망하는 교도는 먼저 서원의 스승님께 말씀 드리고, 가정방문 일정을 함께 의논하여 진택불사와 가정본존봉안 불사를 행하도록 한다. 이사를 하게 될 때는 이사하기 전에 '가정본존이안불사'를 하고, 이사한 후에는 '가정본존봉안 불사'를 올린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사하기 전의 이안불사는 간단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사 후에 봉안불사는 필히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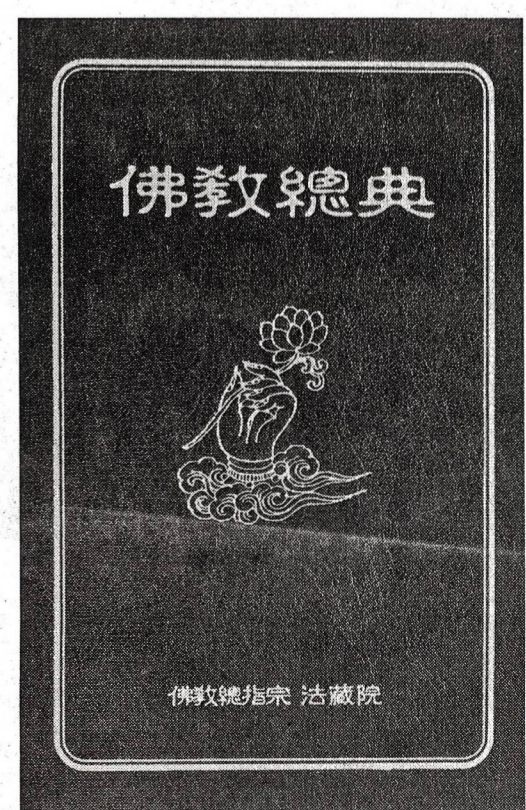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논단

실천 공부 13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 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으셨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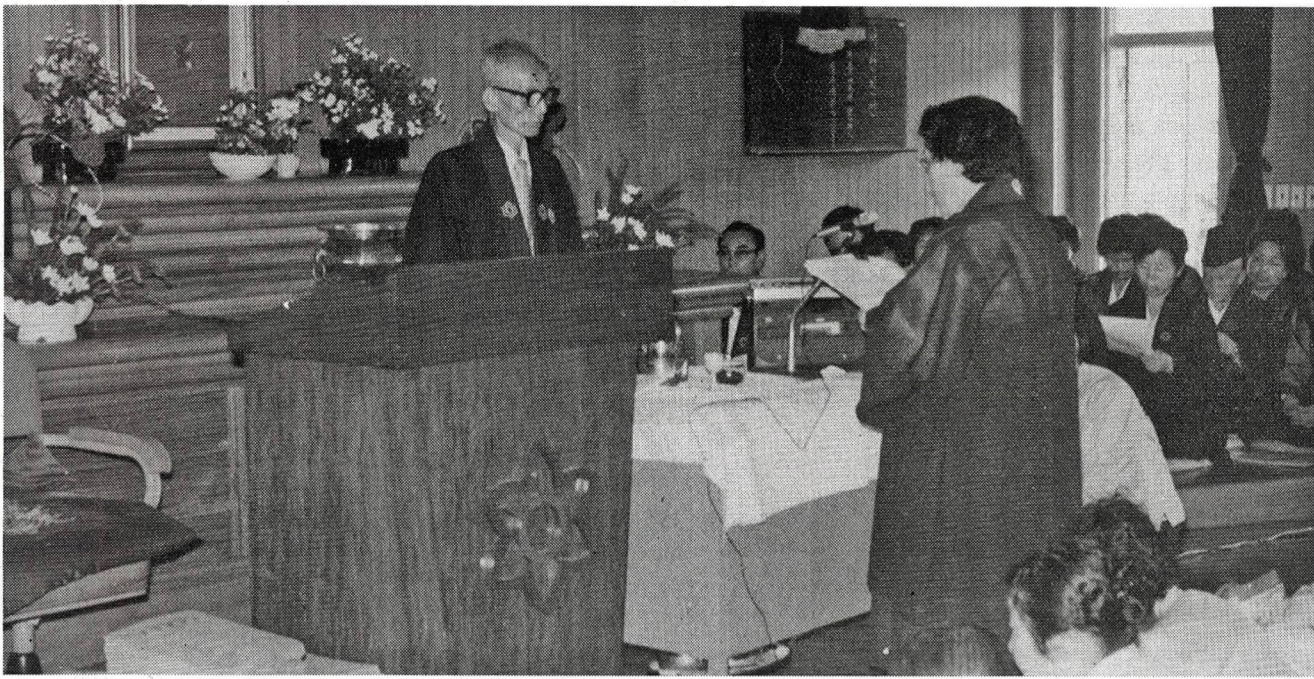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이루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병이 나거나 혹은 병이 더할지라도 허물을 뉘누치고 악을 쓰지 않는 것은 심마를 물리치고 심인을 깨치는 데 한 시련이 될 것이며 또 정기 심공 중에 진리의 심공법을 세우기 위해서 악을 쓸 때를 잃고 늦었다고 하더라도 속히 나를 병이 오래가는 일은 진각법 안에 그와 같은 진리가 없는 것이며 또 우리 신교도로서 천만번이나 실험하여 온 결과도 실패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은 몰라도 병이 다 되어서 죽을 병이 들린 사람에게 악을 써서 낫는 것도 아니고 이와 반대로 아직 병이 남아 있는 사람이 병들어서 의원을 구하여 약 쓰지 않았다고 죽는 것도 아니라 병은 의원에도 약에도 있지 않는지라.

오안이 열려서 중생을 불진대 세상 사람의 의원은 응급적 임시로 치료하는 법에 불과 하므로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순만치는 것이 되어서 위장병을 고쳐 놓으면 폐에 병이 나고 심장



마음으로서 낸 병은 심인진리를 깨쳐서 능히 병고를 해탈

많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위생과 의료기관이 발달되지 않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육체병을 고치는 좋은 의원이 없다는 것 보다는 정신병을 고치는 의원이 불보살의 법약을 먹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의료기관 시설이 많은 도시에서는 병이 적을 것인데 도리어 정신병과 내부병과 기타 해부할 병이 많은 것을 보고 알 것이다.

변하는 것은 미래의 복이 주가 되고 행하는 것은 현재의 복이 주가 된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가 다 열하고 행하는 것이 서로 관련되어 있느니라. 열불 인연한 공덕은 미래의 복이 되므로 시대에 맞지 않는 관을 쓰고 도포를 입더라도 나의 의범과 행사하는 그 시대

에 이르러서 복을 받게 되려니와 육행을 실천한 결과는 현재에 복이 되므로 현대의 의범과 행사로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현재에 행복으로 살게 되느니라. 죄는 네 가지의 그릇된 것이니 곧 지수 화풍 네 가지 현실에 그릇된 것이 죄가 된다.

사람 죽고 도적질 하는 것은 다 죄인줄 생각하고 또 행해서는 안된다의 것도 알되 봉건시대는 가고 자유시대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봉건 조상으로부터 행하여 오던 적은 중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도 죄요 양을 쓰는 시대에 음을 쓰는 것도 죄요 국가 사회를 위해서 할 시대에 자기의 몸과 가정만 알고 절박하여 인색한 것도 죄요 물심양심을 세우는 시대에 물질문명을 열게 되는 과학 교육은 바울줄 알고 정신문화를 열게 되

는 종교는 자유로 직각법을 믿고 심인을 깨칠 줄 모르는 것도 죄요 지혜를 밝혀서 옳은 것을 쓰는 것도 죄가 되나니 그러므로 법계와 인간에서도 그 시대를 알아 응해서 어기지 않거늘 어찌 내가 살

을 같이 오고 이슬을 맞고 한 데 짐을 같이 지는 데도 불구하고 필정에 상해서 마음병을 내어 있는 사람에게 병마가 쉽게 침노하니 그러므로 깨끗한 심장에는 병마가 침노하지 못하게끔 어찌 칠정에 기우러진 사람을 교화선도 하는데 악마로 따르던 병마가 물러가지 않겠느냐.

세상사람은 다 이 이치를 모르는 까닭으로 찬 바람에 상해서 병이 낫다하고 이슬에 상해서 병난 줄만 알게 되나니 악한 세상에 미진 같이 일어나는 모든 병은 불보살보다 더 좋은 양의 될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신라 고려의 불교문화가 발달하였을 때 어떠한 의료기관이 발달되었던가 한번 생각하여 불배 동종의 아니요 서의도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불보살의 광명지혜 안에 진리 법약으로서 병이 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간 있는 병은 백병통치하는 병의가 있어서 무난하게 치료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보살정토이며 극락세계이며 불교문화인 것이다.

바람에도 병이 나고 더위에도 병이 나고 습기에도 병이 나고 마른 데도 병이 나고 추위에도 병이 나니 이것은 의물로 감상되어서 나는 병이

라 천지의 기와 음과 물과 균으로써 나는 병이니 물과 균으로써 나는 병은 물로써 고치게 되므로 곧 약으로써 능히 치료하게 되느니라.

슬픈 데도 병이 나고 성내는 데도 병이 나고 두려운 데도 병이 나고 미워하는 데도 병이 나고 욕심에도 병이 나니 이것은 내심으로 감상되어서 나는 병이라 사람의 심성 곧 자기마음으로서 내는 병이 나 자기 마음으로서 낸 병은 자기 마음으로서 고치게 되므로 곧 심인진리를 깨쳐서 능히 병고를 해탈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의 물심(物心)으로 나는 두 병을 나누어 보면 의물로서 낸 병은 약으로써 쉽게 고치고 내심으로 나는 병은 성품이 어두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느니라. <자료제공 : 종학연구원>

구병(救病)

차라리 죽는 것만 같지 못한 문둥병 같은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는 반드시 죄과라고 생각하고 몸살같은 적은 것은 과로하여 왔다하며 감기 같은 것은 바람 섞여 왔다하고 죄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큰 것은 죄과고 적은 것은 죄과 나지 않는가? 중하고 경한 것만 다를지언정 크거나 적거나 원인은 다 죄로 인연한 것이다.

불(佛)을 배반한 오백년 동안에 민족의 각성이 이루어져서 죄지어서 병들고 약 먹어서 병 낫는 것 밖에 모르니 이것이 진실로 사(邪)에 기우러진 것이 아닌가. 기일을 정해서 심공하는 중간에 새로

병을 고쳐 놓으면 신장에 병이 나고 귀에 병을 고쳐 놓으면 눈에 병이 나고 코에 병을 고쳐 놓으면 입에 병이 나며 유 유상종이라 같은 인연으로 쫓아와서 한 가족으로 살게된 남편의 병을 고치게 되면 얼마 안되어서 부인에게 병이 나고 아버지의 병을 고치게 되면 자식에게 옮겨나서 병으로 이어가게 되니 가족 일생에 병으로 윤회하는 고통을 멸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불보살은 병의 근본을 다스리게 되므로 영원토록 윤회가 끊어지고 고통을 해탈케 되느니라.

현재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병을 가졌기에 가정병원을 차려두고 여러 가지 좋은 약을 준비해서 있는 이가 심중팔구라. 이와같이 약을 가지고 반의원이 되어서도 고치지 못할 병이 우리민족 만큼

조선화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지방간



지방간의 문제는 힘과 통로로 결정됩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 초음파나 피검사를 해보면 '지방간'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술'과 '지방간'은 관련이 없을까요? 해답은 술보다는 오히려 신진대사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몸은 먹고 마

신 것을 해결치 못하면 비축해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간의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하여 간에 누적된 결과 '지방간'인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 신진대사가 점점 어려워지면 간 스스로 붕괴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간경화'라 부릅니다. 문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것인데, 지방

을 분해하려면 따뜻한 기운이 순환되어야 하고, 기운이 활발하면 지방질이 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기운은 순환할 때 힘이 있어야하고, 순환을 위한 통로가

원활하여 비축되거나 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로는 신경 혈액, 호르몬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통로를 열고 닫는 것은 마

지방만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과 통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질은 다시금 붙어납니다. 그러므로 한의학적인 이치와 기운과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하여 간에 누적된 결과 발생 욕심이 적고 마음이 편안하여 두려움이 없으면 해결

열려 있어야 합니다. 힘이 유지되면 피곤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밤낮을 조절하고, 욕심을 조절하고, 음식을 조절하여 힘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지방의 신진대사도

음이 좌우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통로도 열립니다. 따라서 뜻을 한가롭게 가져 욕심이 적고 마음이 편안하여 두려움이 없으면 통로는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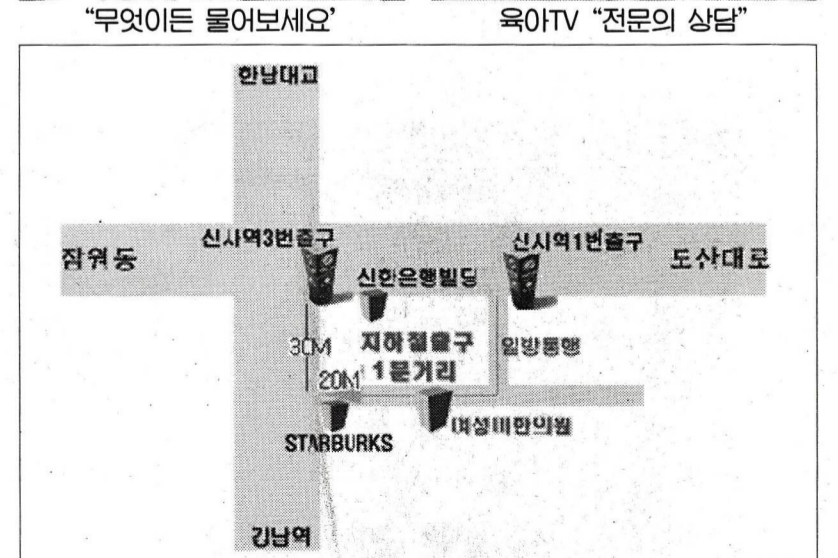
통로를 해결해 주는 한약처방으로 지방간에 접근하면 지방간을 해결하는 문제는 쉬워지고, 더불어 전신의 건강도 되찾을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 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Advertisement for '여성美' (Women's Beauty) clinic, featuring a photo of the doctor and text about various women's health services.

여성美한의원

-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medical services such as '여성부(부인과) 클리닉', '비만 클리닉', '가족 클리닉', and '진료시간'.

Advertisement for KBS and Yonhap TV, featuring photos of the doctor and text about a '전문 상담' (Special Consultation).



A row of images showing various medical equipment and procedures used in the clinic, including ultrasound and specialized treatment devices.

풍경소리

도(道)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선객이 노사(老師)에게 물었습니다.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그런데 왜 제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나'가 있기 때문이다." "저에게 '나'가 있기에 보지 못한다면 스님께서 보이는 겁니까?" "네가 있고 내가 있으니 더욱 보지 못한다." "저도 없고 스님도 없다면 볼 수 있었습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누가 본단 말이나."

- 백암록중에서 맹관자/수필가

세상의 모든 풀들이 약초이듯이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기바'가 의사수업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기바에게 망태를 던져 주면서 말했습니다. "약초를 캐오너라.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그는 며칠이 지나서야 그것도 빈 망태인 채로 돌아왔습니다. "약초는 캐오지 않고 어디를 갔다 왔느냐?" "스승님, 세상에 약초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온 천지가 약초인데 어떻게 다 따낼 수가 있었습니까?" 기바의 말을 듣고 스승은 그를 의사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상에 약초 아닌 것이 없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문운정/수필가

처음 그것

이달의 명상

깨달음은 스스로 다가온다

조선시대 초기 연산군 때 고승 벽계 정심선사와 벽송 지엄선사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불상을 파괴하고 승려를 환송시켜 사냥터의 동물 몰이꾼으로 삼는 등 연산군의 횡포가 심했던 시절 황악산의 직지사 정심선사는 숙인으로 변복을 하고 산너머에 있는 물한리란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를 간절히 구하고자 했던 지엄선사가 정심선사를 찾아와 배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정심선사는 3년동안 매일 일만 시키고 '도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법문 한마디를 듣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지엄선사는 정심선사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량을 떠나기 위해 정심선사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산문을 걸어 나올 때 정심선사가 지엄선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엄아, 나를 보이라, 내가 매일 밥을 지으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차를 달여 오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나무를 하라고 할 때 설법을 하였고, 밭을 매라고 할 때 설법을 하였는데 네가 몰랐으니 오늘 법을 받아라." 하며 불끈 권 손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때 지엄선사는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지엄선사는 한번도 법문을 듣지 못하였지만 항상

옛날 어느 나라에서는 혼기를 앞둔 딸을 교육할 때 바구니를 들려 옥수수 밭으로 들여보내다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옥수수를 따오면, 아주 마음에 드는 훌륭한 신앙감을 골라 줄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들은 대개 빈 바구니를 들고 밭을 걸어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으나,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것이 있겠지'하고 자꾸 앞으로만 나가다가 결국은 밭이랑이 끝나 빈 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밭고 긴 인생의 행로에서 내가 선택할 것이 많으나 참으로 내 것인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씩고 심은 날

며칠만 두어도 쇠내가 나는, 다 먹지 못한 음식 배고픈 누군가의 먹을 만한 밥 한끼도 되지 못한다면야 차라리 썩는 게 낫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썩는 그 썩어빠진 밥을 보며 나도 썩고 싶어진다. 썩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판단하여 썩는 것, 용기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 톨의 식량도 못되면서 무르지도 썩지도 않고 향기도 없으니 썩는 것들 앞에서 범새나다고 코를 막지 못하겠다. 이런 먹을 것이 못 된다며 쇠내를 풀풀 풍기는 것들 앞에서는 내가 이제껏 무엇, 무엇을 삼켰는지 솔직하게 고백할 만한, 그런 쇠내 비슷한 범새라도 좀 낫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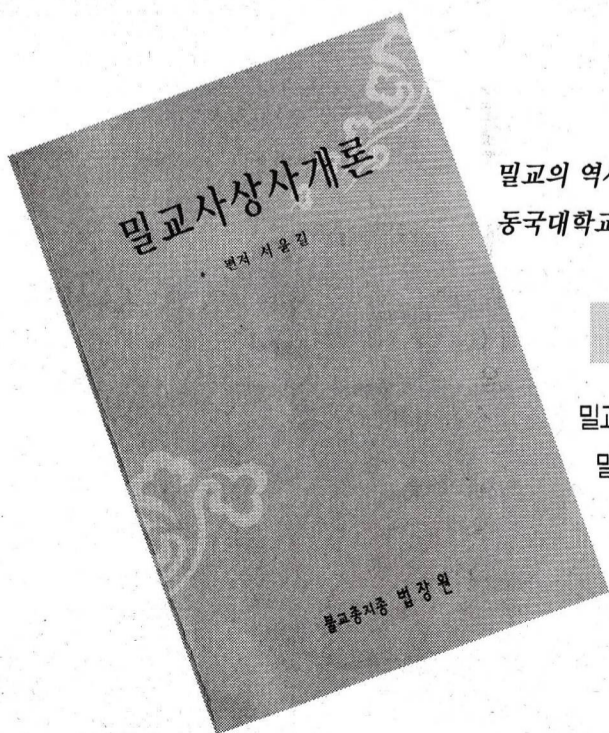
- 나혜경/시인

월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밀교 -반야심경편 제30화- 글:그림/정수일



『밀교사상사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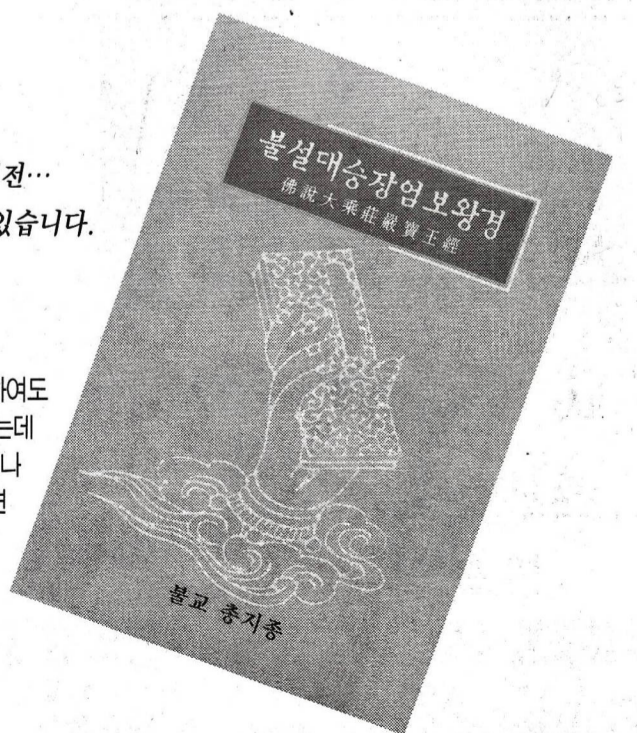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음마니반메흠)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아제아제 바라아제**

**불사(佛事)가 불사(不思議)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해인사의 대형불사 및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세간이 어지러운데 더욱 더 혼란스런 마음이 일어났다.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의 길이가 사찰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인지, 출가자들의 삶의 방식이 세간과 무엇을 달리하는지의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요즘 사찰의 불사방식은 대부분 큰 규모와 현대적 시설을 잘 갖추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현상은 큰 사찰일수록 더욱 눈에 띈다. 그리고 대형 불사의 이유로는 늘 '신도들과 스님들의 수행공간 확보 또는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명분이 전면에서 등장한다. 물론, 거론되는 명분들이 모두 수긍할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불사나 신도들에게 지나친 물질적 부담을 안양리에 강제하는 불사는 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사라는 것이 사찰건물의 변화에 주력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을 우리 불자들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마음마저 든다.

지난 7월28일 조계사불교대학에서 작은 토론회가 있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주최하는

님들의 대중공사로 이루어진 반면, 이 '생명살림불사'는 재가자들의 발의와 뜻있는 출가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데도 의의가 있을 듯싶다.

토론은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기존불사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몰아 부치지도 않았고, 기존불사 중에서도 배우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계승해야 하며, 기왕 불사를 할 것이면, 주변 환경에 거슬리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가능하면 진정한 문화적 가치가 있도록 건립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더불어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불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등 불교의 사회적 기능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식이 소수에 집중된 우리의 고대사회에서 불교는 사회적으로 정식으로 지주 역할을 해왔다. 어쨌든, 그 시대에 불교계에서 주도하는 대형불사는 왕실과 귀족들의 든든한 후원과 불사에 참여함으로써 불을 입교자하는 착하고 신심 있는 백성들의 압력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큰 원성이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교육의 발달로 민주적 절차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무모한 듯 보이는 일은

**'생명살림'이란 '모두가 함께 사는 공생의 길을 실천에 옮기자' 출가수행자는 진정 우리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

'생명살림 불사를 위한 토론회'가 그것인데, 기존불사에 대한 고찰 및 불사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물론, 일반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잠시, 생명살림의 불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가자들을 위한 수행과 교육의 공간인 '생명살림도량' 건립.

둘째, 농촌과 못 생명을 살리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친환경공영미 운동'

셋째, 생명살림운동을 제도적으로 불교계에 정착시키는 '생명살림 불교대학' 건립과 '생명살림포교사' 양성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생명살림'이란 '모두가 함께 사는 공생의 길을 실천에 옮기자'는 뜻에서 부처님 이름일진대 아직은 불자대중에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앞으로 이론적 토대 구축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실행해 나간다면 새로운 불교운동으로 삼을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기존의 불사가 몇몇 실제 중진스님들의 발의와 문중스

의견을 수렴하는 공의를 수차례 거치는 과정을 통해 수긍할만한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무난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기에 타종교인들의 방해공작 같은 이유를 들고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자칫 문제를 너무 낮은 수준에서 해결하려는 어설피름의 극치로 보일 수 있다.

소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집착이 많아지고 집착이 많아지면 고통도 많아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자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가르침이다. 다만 그것을 자신의 수행으로 삼아 삶속에서 실현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적잖은 자기 절제력이 없이는 입으로만 아는 것일 뿐 진실로는 감히 흉내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최상위를 잠깐 이 시대에 달 가지려고 노력하는 출가수행자는 진정 우리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인 셈이다.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시대의 불자들에게 오히려 그 의미가 무거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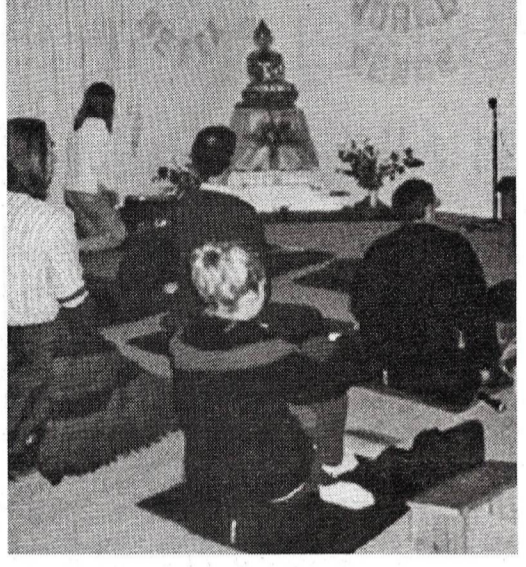
〈김선미/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총무국장〉

**세계속의 불교**

**Buddhism in the West (서양의 불교)**

인터넷을 통해 세계속의 불교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불교가 아시아를 통해 전파되었을 지라도 현대까지 서양에 직접적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아소카 왕때 서양에 보내진 포교사들은 서양전파에 실패하였다. 서양의 불교전파는 서양의 학자, 철학자, 작가, 예술가의 서적, 유럽과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 다양한 형태의 불교를 가지고 온 아시아 이민들에 의한 세 종류의 주요한 통로를 통해 전파되었다.



자기 스스로의 체험을 강조한 불교형태는 많은 서양인들에게 매력을 주었다. 그들은 어떤 것을 믿음에 있어 의문점을 가지지 않고 단지 부처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실천할 뿐이었다. 통신수단의 발달을 통해 서양인들은 단편적인 불교사상과 정보보다 다양하고 최신의 불교에 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불교수행에 대한 정보와 사상은 많은 서양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The influence of Buddhism(불교의 영향)**

평화와 모든 생물에 대한 자비와 보살핌의 불교사상은 서양의 많은 그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불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식물, 새, 곤충, 동물들을 아끼고 보살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최근 인간이 공해를 유발하고, 나무와 숲을 훼손시킴으로써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Buddhism Travels West(불교의 서양이동)**

부처의 가르침이 2,500년동안 아시아에서 알려졌지만 서양에서는 50년전까지 불교의 의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1백년전에 프랑스, 네델란드, 영국, 다른 유럽국가들은 아시아로 여행하기 시작했고, 그때 서양인들은 동양사상을 가지고 오면서 불교란 단어를 듣게 되었다.

최근에는 불교인들이 서양으로 이주하였고, 그들은 갈등과 반목의 사회에서 피안정 역할을 하였다. 일례로 1959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한 후 많은 티베트인들이 서양으로 이동하였고, 1950년대와 60년대 인도차이나반도의 전쟁으로 많은 베테

남인들도 유럽, 호주, 미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였다.

태국과 같은 동양의 불교인들은 서양의 대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들은 그 도시에서 불교를 신앙하여 불교사원을 만들었다.

**Introduction of Buddhism to Europe (불교의 유럽소개)**

18세기에 아시아를 침략한 사람들에게 의해 많은 불교서적이 유럽에 소개되었다. 불교서적은 유럽의 학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여 연구하게 되었고, 19세기 중반에는 몇 개의 불교서적이 유럽언어로 번역되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많은 유럽학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몇 명은 불교사상을 그들의 자서전에 소개하였다. 20세기 초에는 많은 불교서적이 영어, 불어, 독일로 번역되었다.

**Growth of Buddhism in Europe (유럽에서 불교의 성장)**

20세기초에 불교의 연구는 학자들의 연구에만 한정되고 일상화되지는 않았다. 그후 이러한 형태는 변화되어 많은 유럽인들은 불교의 서적을 읽는 것만으로 불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불교국가를 방문하여 불교수행법을 실습하고 승가생활을 경험하였다.

후에 불교단체들은 유럽의 주요도시에서 발견되었고, 이들중의 하나인 런던불교단체는 1920년 설치되었다. 그것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조직이었다. 이러한 불교단체들은 명상센터와 강의, 불교문학을 통해 서양의 불교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20세기 초에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 동양을 방문한 많은 유럽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승려가 되거나 유럽에 불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스리랑카와 다른 불교국가들의 승가단체와 교류를 강화하였고, 최근에는 유럽 불교를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유럽의 불교단체의 회원들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원들이 개설되고 있다.

그들의 회원들은 대부분 학자와 전문가들이다. 최근에 유럽에 유행하고 있는 불교단체는 테라바다, 퓨어랜드, 쟈, 요가 니치렌소수이다.

**Introduction of Buddhism to America (불교의 미국소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학자들은 19세기에 소개된 불교사상에 관심을 가졌고, 미국의 가장 오래된 대학에서는 동양학과를 개설하여 불교를 연구하였다. 19세기 후기에는 중국의 이민들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고, 이들은 많은 대승불교 수행법을 소개하고 사원을 개설하였다.

그후 일본 이민들은 사원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일본불교의 각 종단스님들을 초청하여 법회를 봉행하였다. 그러나 불교활동은 이민들사이에만 포교되었다.

19세기 말경에는 스리랑카의 다르마팔라와 일본 쟈센터의 소엔사쿠가 시카고의 지역종교대회에 참석하여 불교에 대하여 강연한 후 청중들은 감동되어 미국에 쟈불교의 건립에 도움을 주었다.

그 기간동안 종교단체연합은 미국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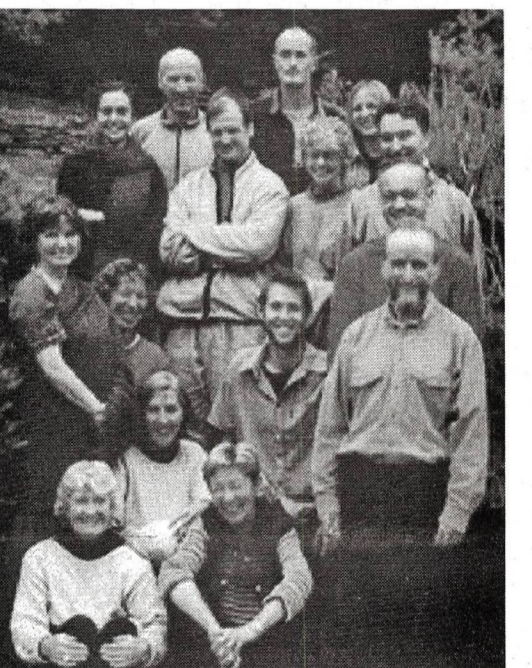
**Growth of Buddhism in America (미국에서의 불교성장)**

불교가 미국전체에 전파된 때는 20세기 후반이다. 미국에서 불교 포교사들은 2차대전과 한국전쟁이후 아시아에서 니치렌소수와 쟈불교를 가지고 돌아왔다. 19세기에는 문학과 예술분야에 불교가 놀라운 인기를 보였고 이러한 일은 불교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1959년 이후 티베트인들이 미국으로 이동할 때 바즈리아나(밀교) 불교를 소개하였고 불교는 그곳에서 터전을 마련하였다. 냉전기간동안 학술적 관심은 고조되었고, 불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미국 대학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At Western Buddhism Centres (서양의 불교센터)**

동양에서처럼 서양의 불교수행법은 사람들은 다리를 접고 손을 무릎속에 손을 넣고 방석에 앉아 명상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은 매일 개인적인 소개와 저녁 설법을 듣는 상담을 수반하여 명상하면서 걷기, 앉아서 명상하는 수행을 한다.

어떤 그룹들은 흥겨운 노래를 하거나 부처님의 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 테라베드 그룹은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아침에 스님들에게 줄을 서서 공양을 제공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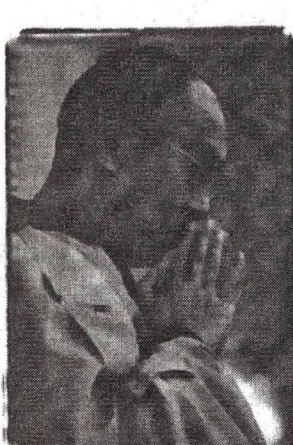


티베트그룹은 활동적이고, 흥겹고, 서로간에 묻고 답하며, 종을 울린다. 일본 쟈그룹은 매우 엄숙하여 많은 시간을 조용히 명상하는 데 소비한다. 불교센터의 운영자들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오늘날 존재하는 거대한 불교센터는 호주, 뉴질랜드, 유럽, 남아메리카에 널리 퍼져있다. 불교는 서양인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유발하며 그들의 인생행로를 변화시키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buddhanet.net/learning/buddhistworld/to-west.htm 번역: 김용주/총지종보〉

**외로운 가을,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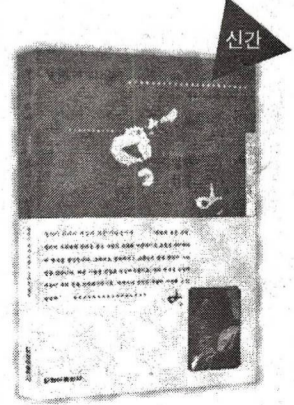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강주현 옮김 신국판 변형 값 8500원

**“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의 정을 키웁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경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충고가 무척이나 간단한 것이지만 이 충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주시고, 우리 친구를 걱정해 주듯이 우리 적을 걱정해주시고요. 이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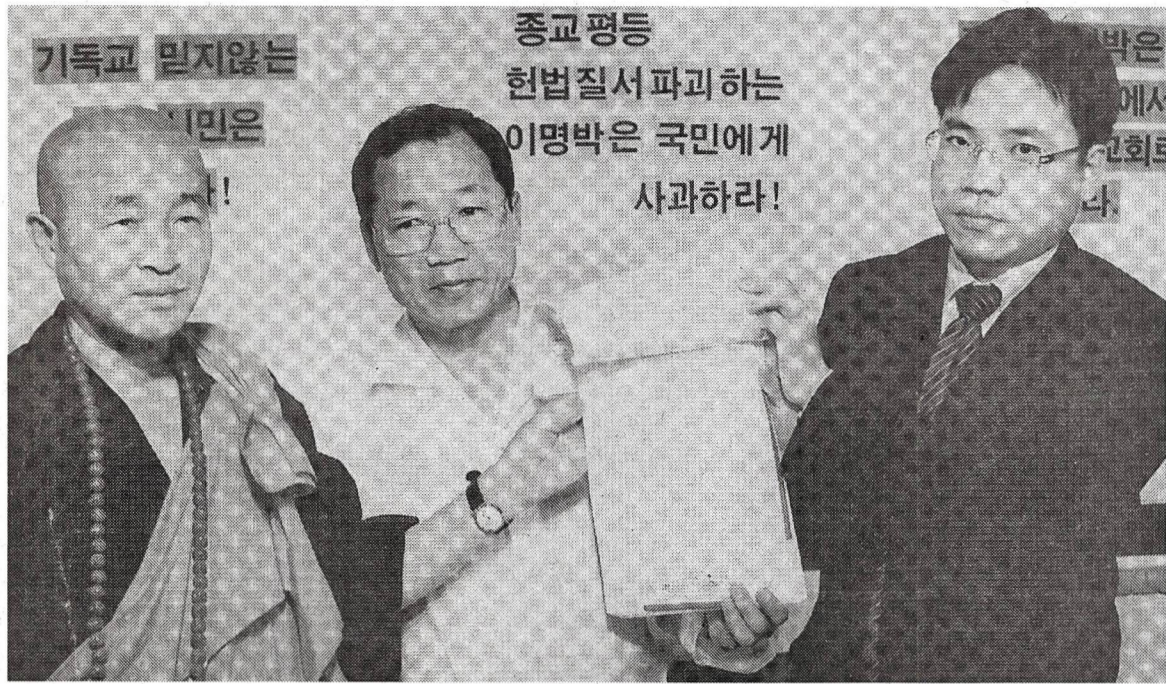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조금의 가식도 없는 순수한 연민으로 삶의 연륜, 상황, 역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짙직한 조언들을 담았다. 그리고 호탕한 웃음까지 터트리면서 달라이 라마의 진실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살아 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 서울시장 상대 집단소송

## 시민·불교인사 108명 '서울시 봉헌' 망언 제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 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 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 하는 서울 기독교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고 기독교청년연합대 회에서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을 둘러싸고 불교계가 '사회와 종교화합실현을 위한 범불교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선각을 잇는 앙상을 보이다가 지난 7월 26일 집단소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불길이 되살아났다.

서울시민과 불교인사 108명의 소송인단은 "동산반야회, 광불협, 불교인권위원회 등 7개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시장 퇴진 불교운동본부'와 뜻을 같이해 퇴진운동을 벌이기 로 합의했다"며 "서울시 봉헌으로 인한 종교적 갈등 및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해 집단소송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이명박 서울시장은 ▲현행헌법에 규정하는 종교분리의 원칙위반 ▲종교평등의 원칙 ▲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 의무위반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

자를 이용한 사과문 어디에도 '서울 봉헌'이라는 문구도 없고 '서울시 휘장도 없다'고 밝히고 "이시장은 봉헌 사건 자체를 얼버무리 봉합하려는 알파한 수를 쓰고 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종교 만큼 이웃의 종교 역시 소중하다는 점을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나라종합법률사무소 김경주 변호사는 "이명박 시장의 발언은 분명 서울시민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용해 정식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인단은 이날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1인 10만원씩 1천 8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 태고종, 몽골불교계와 교류추진

## 몽골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 장학금 전달

태고종이 몽골국립대학교(총장 간트소그)한국어과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몽골불교계와의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불교포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불사를 위해 태고종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몽골 국립대학 한국어과에 장학금을 전달을 위한 몽골사찰순례대회'를 봉행하고, 몽골국립대학 한국어과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태고종 일행은 범회 기간 중 몽골국립대학교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체덴다바 몽골대통령 종교특보와 오찬을 하고, 양국의 불교교류와 몽골불교의 현황에 대해 환담하기도 했다.

또 몽골불교의 총본산적인 간등사원, 초이진라마사원 등을 참배하고 몽골불교 지도자들과 만나 몽골 불교의 활동과 승려교육 및 수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불교교류와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몽골국립대 장학금 전

달식은 23일 오전 부총장실에서 있었다.

이 전달식은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과 박인공 중앙종의회 의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과 슈란다바 몽골대 부총장과 한국인으로서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남정주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전달식을 마친 후 몽골국립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태고종과 몽골국립대의 상호교류 증진방안 등에 대해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운산 총무원장은 "종단의 이번 방문이 현재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교 재건운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 며, 학생들이 부지런히 한국어를 익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불교 태고종에 관심을 가지

고, 이번 방문을 통해 몽골불교와의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몽골대 슈란다바 부총장은 "태고종에서 본 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애정을 표해준 데 대해 학교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태고종과 몽골불교와의 교류는 물론 양국 우호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일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몽골불교와의 교류를 더욱더 확대하고, 해외포교에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한국불교를 해외에 포교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구독문의  
☎ 02)552-1080~3

# 불교화합의 국제학술대회

## 태국 마하출라롱컨대, 천여명 참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 전세계 45개국 천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태국에서 일체된 수행, 불자들의 연대와 협동'을 주제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소승불교국가인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컨대학이 처음으로 개최한 것으로 불교의 학술적인 연구를 통한 세계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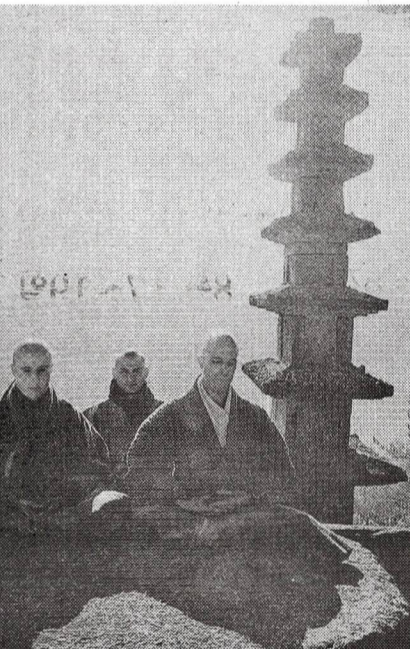
한국불교 대표에는 동국대 교수 해주스님을 비롯하여 비구니 스님 8명이 참가하여 한국 비구니의 위상을 강화하고 수행체계를 소개하였다.

학술대회에서 해주스님은 불교 분야에서 '한국불교승가의 비구니 및 사미니 교육'을 서울아산병원 법사 지홍스님은 사회복지 분야에 '한국 비구니의 병원봉사 현황', 불교방송 진행스님은 '한국 여성불자들의 대중매체 포교현황' 등을 각각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던 태국에서 한국 비구니 스님을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최근 중앙승가대학에서 열린 제 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를 통해 한국 비구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 불교계 웰빙문화로 포교

## 요가, 명상, 다채로운 프로그램개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 사찰들은 각종 전시회, 명상, 요가, 나를 찾는 여행, 산사 음악회 등 웰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며 포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육지장사, 강화도 전등사, 선원사, 봉선사, 대원사 등은 대표적인 사찰들이다. 남양주 육지장사는 산사 영화제에 이어 국내최고의 락계의 슈퍼스타로 불리는 블랙홀, 베베등을 초청하는 대규모 '명상 락 슈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또 물을 바로 마시기, 숲길을 걸으며 명상하기 프로그램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강화 선원사는 인기 최고인 황도 불한중막을 하루 2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600여평의 연꽃밭, 연뿌리와 연잎으로 만든 연방면 등 사찰음식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전등사는 명상음악회, 사찰사진 전시회 등 사찰문화와 결합된 폭넓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인도퓨전그룹인 썬키프렌즈를 초청 명상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봉선사는 웰빙이 결집된 광릉 봉선사 연꽃축제, 명상 전문가인 봉선사 연꽃축제와 함께한 광릉수목원 웰빙건강 명상프로그램, 사찰음식, 영화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전남 보성의 대원사는 연중 연꽃위의 청정이를 마시기 명상, 하늘

호수 생연꽃 차 시음회, 연꽃피는 소리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 연중 운영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는 통일 대불전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요가를 지도해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각 사찰들은 사찰의 자연친화적인 공간과 연계하여 각종 웰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 진각종 '정진실수' 교육

## 진각대학 4학년 묵언, 발우공양, 정진수행

진각종은 진각대학 4학년생 7명을 대상으로 '정진실수' 프로그램을 7월26일부터 30일까지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진각대학은 진각종의 스승인 정사, 전수의 계를 받기 전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정진실수' 교육은 '묵언, 발우공양, 정진으로 선방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형태이다.

본격적인 정진실수에 앞서 첫째 날에는 발단 불사를 시작으로 혜정심인당 법경 정사의 지도로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경당 진각대학 교무처장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본격적인 정진수행이 시작된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묵언으로 일관하면서 하루 9시간의 정진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수행과 공양시간 외에는 '심인 밝히는 공부', '밝게 사는 법', '육자진언 연습하는 생활', 등 진각선존 회담 대중사의

법어와 실행론을 묵독하거나 묵송하였다.

하루의 일정이 끝난 후에는 법담을 겸한 평가회를 열어 정진실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진실수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허일범 진각대교수, 덕일 위대대 정교실장 등이 '정진'을 주제로 1시간씩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강의는 학자 겸 수행자의 입장에서 본 '정진' 등 다각도에서 수행을 비교 체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경당 진각대학 교무처장은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자기 수행을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으로 정진실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아를 성찰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화의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종단 수행문화에 있어 초석이 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나도 한마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처님 세계

오늘은 총지사에서 제9대 총령 효강대종사 추대대회를 봉행하기 위해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보살들이 노래연습을 하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발걸음을 재촉한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보살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총지사에 도착하여 오늘 부를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고 있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이 종단의 큰 행사에서 독자적으로 음성공양을 한 것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시련도 많았다. 어떤 때는 늑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후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행사에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찻집방을 방불게하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모든 보살들이 아름다운 협주곡을 만들고 있을 때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환희심이 솟아났다.

행사를 마치고 합창단 보살과 교도들이 찾아와 서로간에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천상세계가 아난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가짐과 말 한마디를 행할 때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부처님의 세계가 바로 눈앞에서 실현하는 것 같았다.

**<최재숙/서울시 성북구 인암동>**

##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알버트 A슈바이처-

선진외국에서는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은  
자국에서 해결토록 하는 자급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혈액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니 헌혈했니?

당군이지!

# + 대한 적십자사



